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송에 새 동지... 성과 창출 본격화

내달 4일 오프닝 세러머니·심포지엄
분산된 연구·개발 역량 통합하고
오가노이드 클러스터 구축 예정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오송생명과학단지 본사를 이전하며 판교를 넘어 '오송 시대'로 새로운 챕터를 연다. 지난해 12월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완료하며 상용화의 문턱에 들어선 직후 단행된 전략적 행보다. 회사측은 그동안 입증해 온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즌(Season)2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3월4일 충청북도 오송에 문을 연 새로운 본사에서 오프닝 세러머니를 갖고 'The next frontier beyond future(미래 너머 새로운 개척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본사 이전은 그간 분산돼 있던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원 사이트(One-Site) 통합'과 함께, 오송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에서 한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을 거점으로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오가노이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이전을 통해 연구부문 관련 부서들이 집중 배치되면서, 부서 간 협업과 피드백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중복 발생하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경상 비용을 절감해 비용 구조가 개선되면서 재무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감된 재원은 R&D와 임상 개발에 재투자되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기관과 기업의 연구·생산 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입주 기업은 세제 감면, 인허가 신속 처리(Fast-Track),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송에서 새로운 오가노이드 산업의 중심지 '오가노이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대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단지 내 제약사, 대학병원, 국책 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임상·허가·생산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주도하고자 한다"며 "기업들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과 가까운 곳에서 임상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통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본사 이전을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즌2'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 질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아톰(ATORM)-C'에 대한 IND 제출을 마치고 국내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유 대표는 "그동안 시즌1이 오가노이드 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시기였다면, 시즌2는 임상 성과를 통해 기업 가치를 입증하고 상용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단계"라며 "주요 파이프라인의 IND 제출을 완료하고, 향후 임상 1/2상 진행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이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 개소식과 함께 열리는 'The next frontier beyond future'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모달리티로서 오가노이드 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충북 바이오헬스 비전과 연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중미 온두라스에 'BBQ 1호 매장' 문 연다

1분기 내 온두라스 내 4호점 추가
멕시코·칠레 등 아메리카 지역 확대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중미지역 온두라스에서는 처음으로 마스데발 플라자점을 오픈하며 북중미 권역에서 구축한 성공 모델을 발판으로 남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BBQ는 파나마·코스타리카 등 중미와 바하마·자메이카를 포함한 카리브해 권역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현지 외식 시장에서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이는 단순한 해외 매장 확장을 넘어, 현지 소비 트렌드와 운영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K-푸드를 일상 소비 영역으로 정착시키며, 지속 성장이 가능한 해외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BQ는 지난해 말 온두라스 산페드



BBQ가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San Pedro Sula)시에 위치한 마스데발 플라자(Masdeval Plaza)점을 오픈했다.

/제너시스BBQ

로술라(San Pedro Sula)시에 위치한 마스데발 플라자(Masdeval Plaza)에 약 83평, 120석 규모의 매장을 처음으로 오픈했으며, 올해 1분기 내 온두라스에 4호점까지 추가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BBQ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바하마, 자메이카, 온

두라스 등 중미·카리브 권역에서 총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현지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BBQ는 콜롬비아 진출을 시작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혼밥 늘며 구내식당 간편식 코너 '인기'

현대그린푸드 간편식 이용 28%
3년 내 라인업 1200종 이상 확대

현대그린푸드가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간편식 코너 이용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의 제조 역량을 앞세워 품목 수를 대폭 확대하자 간편식을 찾는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단체급식 사업장 전체 식수(식사 수량) 중 간편식 코너를 이용한 비중이 역대 최대인 28%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간편식 코너 식수 비중이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년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혼밥 문화

와 더불어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헬스, 취미 등에 활용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배식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는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간편식 식수 비중은 지난 2023년 처음 두 자릿수를 넘었고 현재는 전체 단체급식 고객 네 명 중 한 명이 선택하는 핵심 코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간편식 비중 확대에 대해 직접 제조하는 간편식 품목 수를 650종까지 대폭 확대한 게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색이 다양해지면서 간편식을 선택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간편식 라인업을 향후 3년 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20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동아제약, 청소년 키 성장 돕는 건기식 선보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 출시

동아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에서 청소년 키 성장을 위한 '포텐셜 키성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 제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글루코사민(FGO)을 주원료로 활용한다. 유산균발효글루코사민(FGO)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섭취군의 24주 후 신장이 대조군 대비 0.87cm 추가 성장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신제품은 '스트레스

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홍경천추출물을 함유한다.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성장 발달이 활발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비타민D와 비타민K를 비롯해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군,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셀레늄 등을 담았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 제품은 정제 2정과 액상으로 설계된 이중 제형을 처방한 것으로 하루 한 번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비컴플' 시간대 별 컨디션 관리

유한양행은 고급 일상관리 브랜드 '비컴플'에서 '모닝샷', '오후샷', '굿나잇'을 공식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컴플은 바쁜 현대인의 하루 컨디션을 시간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비컴플 모닝샷'은 전날의 피로와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제품이다. 밀키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을 함유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비컴플 오후샷'은 활기찬 하루를 위해 20종의 기능성 원료를 한 병에 담은 멀티비타민이다. /이청하 기자

"'달잠' 바디워시로 자기 전 힐링 어때요?"

아모레퍼시픽, 로션·미스트 등 구성

아모레퍼시픽은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에서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달잠' 제품군을 새롭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달잠은 바디워시, 바디로션, 바디미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성분과 향은 물론, 촉각 및 시각적 요소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밀키라벤더 향을 중심으로 마그네슘이 함유된 슬립토닌 성분이 피부 장벽, 진정, 보습 등을 개선한다. 특히 슬립토닌은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과 테아닌을 처방한 것으로 '힐링 나이트 루틴(달콤한 잠 같은 포근함)'을 완성해 준다.

달잠 밀키라벤더 바디워시는 밤하늘의 오로라를 연상시키는 영롱한 펠 제



해피바스 '달잠' 밀키라벤더 바디로션

/아모레퍼시픽

향과 구름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밀키라벤더 바디로션은 인체시험적용에서 4주 사용 후, 피부 스트레스와 붓기를 각각 51.8%, 31.7% 낮췄다.

/이청하 기자